

출장결과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일본의 쌀 과잉문제 해결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논농업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동향과 산지에서의 대응방법, 전업적 경영체 육성,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농협의 역할 등에 대한 실태 조사

2. 출장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태곤

3. 출장지역 및 기간

일본 가고시마현(鹿兒島縣), 미야자키현(宮崎縣), 도쿄
1월 14(수)~20일(화) 6박7일

4. 조사항목

- 전작물에 대한 산지지원대책
 - 직접지불제, 지역별 전략품목육성대책 등
- 기업의 농업경영 사례
- 지역농협(JA출자농업생산법인)의 농업경영 사례
 - 경영개황, 경영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
- 마을영농의 농업경영 사례
 - 경영개황, 경영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
- 최근 농정개혁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등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水溜 一紀	농사조합법인 돈돈팜 후루도노(古殿) 사무국장
秋山 邦裕	가고시마(鹿兒島)대학 농업경영경제학부 교수
李 哉滋	가고시마(鹿兒島)대학 농업경영경제학부 준교수
石田 立夫	코지카(小鹿)농업생산영농조합 대표이사
東 光哉	코지카(小鹿)농업생산영농조합 사업부장
池田 竹志	코지카(小鹿)농업생산영농조합 종합관리과장
白井 廣一	코지카(小鹿)농업생산영농조합 청년부장
中田 幸男	농사조합법인 유메팜 타로보우(太郎坊) 대표이사
白尾 靜昭	유한회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쥬(都城) 전무이사
曾我部 學	미야자키현(宮崎縣) 농협중앙회 후계자대책실 과장보좌
三浦 洋子	치바(千葉)경제대학 교수
渡部 靖夫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차장
遠藤 芳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교류협력과장
會田 陽久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국제영역 상석주임연구관
吉井 邦久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식료영역 상석주임연구관
上林 篤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식료영역 상석주임연구관
谷口 信和	동경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대학 교수
李 兪美	일본농업연구소 연구원

6. 조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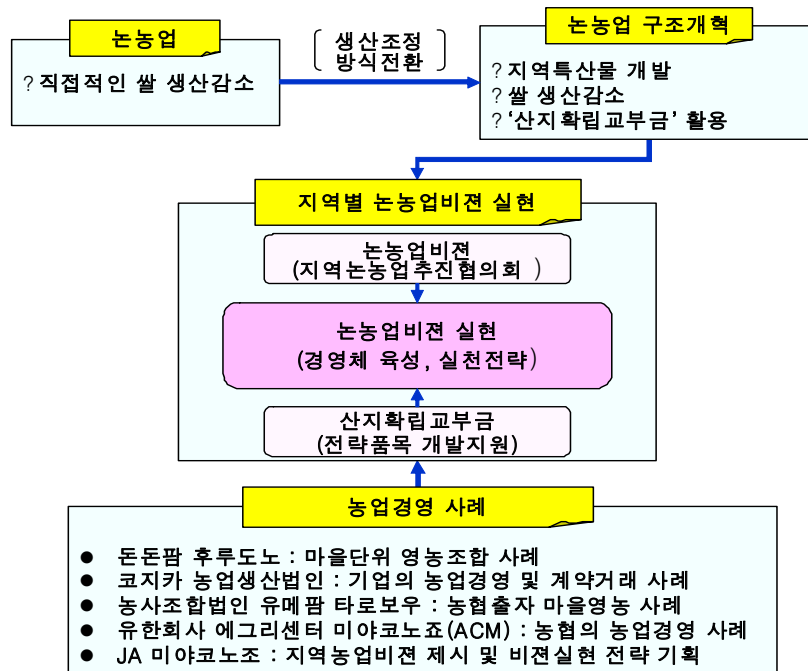
일자	주요 일정	비고
1월 14일(수)	09:30~11:10 출국 KE785(인천~가고시마(鹿兒島)) 12:00 가고시마(鹿兒島)대학 농업경영경제학부 교수 李 哉滋 13:00 가와나베(川辺) 야스라기 고향(미치노에키) 14:00 농사조합법인 돈돈팜후루도노(마을영농) 사무국장 水溜 一紀 18:00 나나즈시마(七ツ島) 물산관 (가고시마현 농협중앙회 소비지직판장) 19:00 가고시마(鹿兒島)대학 농업경영경제학부 교수 秋山 邦裕	(숙박) 鹿兒島東急호텔 099-257-2411
1월 15일(목)	09:30 이동(가고시마시~카노야시) 13:00 코지카(小鹿)농업생산영농조합(기업의 농업경영) 대표이사 石田 立夫	상동
1월 16일(금)	07:00 이동(가고시마시~미야코노죠시(都城)) 10:30 농사조합법인 유메팜타로보우(농협 출자회사) 대표이사 中田 幸男 13:00 유한회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죠(농협 자회사) 전무이사 白尾 靜昭 16:00 미야자키현(宮崎縣) 농협중앙회 후계자대책실 과장보좌 曾我部 學 18:50~20:15 이동 JL1892(미야자키~도쿄)	新宿와싱턴호텔 03-3343-3111
1월 17일(토)	10:00 치바(千葉)경제대학 교수 三浦 洋子 (자료수집)	상동
1월 18일(일)	(자료정리)	상동
1월 19일(월)	10:00 農業書서비스센터(JA) 14:00 農林水産政策研究所 차장 渡部 靖夫 식료영역팀장 吉井 邦久 등 15:00 農林水産省 생산국 농업생산지원과 심사관 篠田 亨	상동
1월 20일(화)	14:00 東京大學 교수 谷口 信和 일본농업연구소 연구원 李 侖美 20:05~22:25 귀국 KE 2710(하네다-김포)	

II. 출장 결과

□ 요약

- 논농업의 쌀 과잉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을 종전의 ‘쌀 감산’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특산물 육성’으로 전환하여 지역농업 진흥을 유도하고 있다.
- 지역농업 진흥은 지역농협 중심의 ‘지역논농업추진협의회’가 결정한 ‘지역농업비전’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행한다. 국가의 ‘산지확립교부금’을 활용하며, 육성품목, 지불방식, 지원단가, 전략 등은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한다.
- 가족경영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 축소와 유희농지 발생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경영체로서 마을단위 영농조합, 기업의 농업진입, 농협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수탁(농업기계은행사업)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별 논농업비전 실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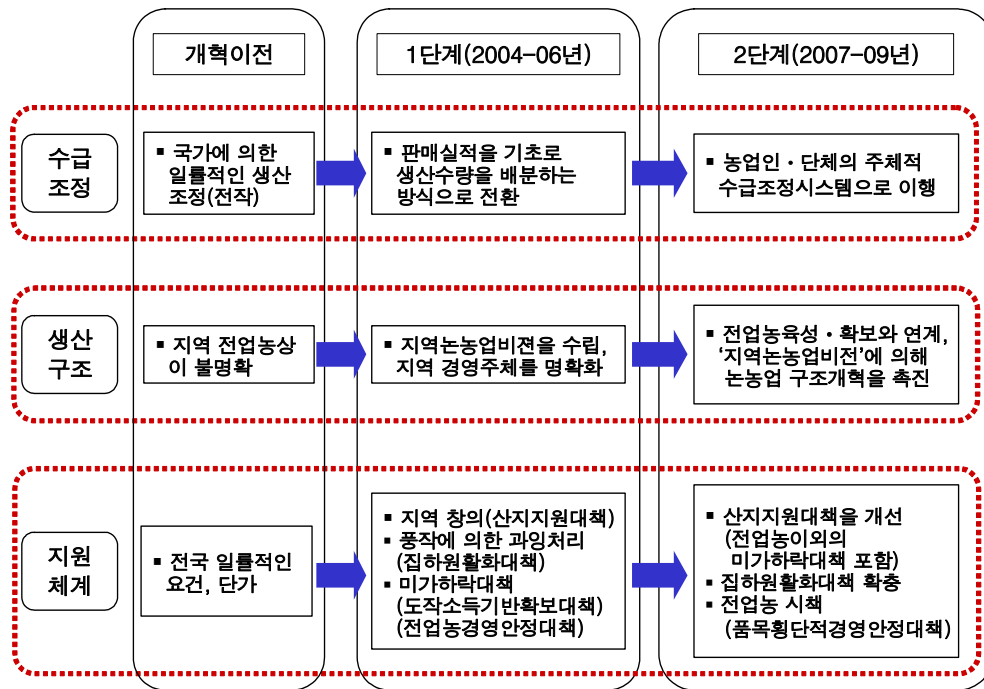
1. 일본 쌀 대체품목 육성대책

1.1. 쌀정책 개혁

- 일본의 쌀정책은 2002년 12월에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쌀정책대강’에 근거하여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시험사업은 2004~06년 3년간 실시 되었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7~09년 3년간 실시 중에 있다.
- 쌀정책 개혁의 목적은 ‘소비자 중시’, ‘시장 중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수요에 따른 쌀 생산을 추진하여 농농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① 수급조정대책, ② 생산구조대책, ③ 지원대책 등 3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수급조정대책은 전국 일률적인 생산조정(전작)방식에서 각 현별로 쌀 판매실적을 근거로 한 생산할 ‘수량배분방식’으로 전환한다.
 - ② 생산구조대책은 농농업추진협의회(추진협) 별로 ‘지역농농업비전’을 수립하여 지역 농농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다.
 - ③ 지원대책은 전작을 대신하는 대체작물 생산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산지지원대책’¹⁾, 쌀 풍작에 의한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하원활화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이 중에서 산지지원대책은 농농업에서 쌀 대체품목을 지원하여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대책은 지역별로 추진협이 수립하는 ‘지역농농업비전’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또 쌀 생산조정과 연계를 하여 쌀 생산을 축소하되, 지역 농농업의 진흥, 전업농의 육성 등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추진협은 종전의 지역농협단위로 설치되며, 사무국은 농협, 회장은 조합장이 되며, 회원은 농협관내 생산자, 생산자단체, 보급센터(현), 공제조합, 농업공사(시), 농업위원회 등이다.

1) 2009년부터 ‘산지확립대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1 쌀정책개혁의 방향



1.2. 산지지원대책 : 논농업의 쌀 대체작물 육성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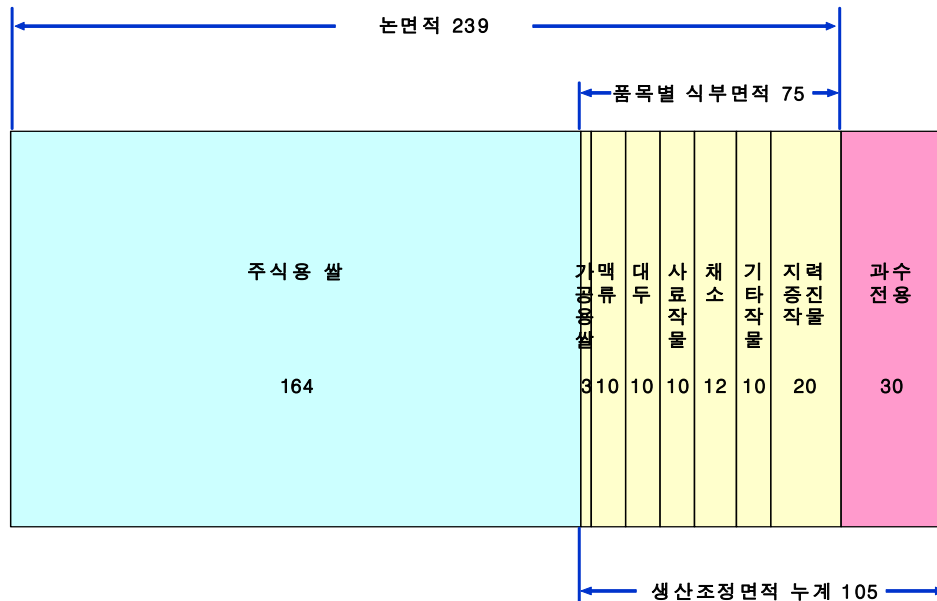
(1) 개요

- 일본에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을 정점으로 총인구의 감소에 의해 쌀의 총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쌀 생산조정은 불가피하다.
- 쌀 생산조정은 계속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산지지원대책이다. 논농업에서 쌀을 대체하는 품목 식부를 지원하여 쌀의 원활한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의 논농업 진흥, 구조개혁 추진, 전업농 육성 등이 정책 목적이다.
- 이 대책은 2004년 도입되어 3년간 시험 실시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년 현재 논농업에서 품목별 식부면적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 논에서의 생산조정 누적면적은 105만ha에 달한다. 이 중 과수재배나 타용으로 전용된 30ha는 작물생산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 쌀 식부면적은 164만ha이다. 이 중에서 품작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과잉식부 면적이 7만ha에 달하며, 이 부문에 대해 2009년부터는 ‘사료용 쌀’, ‘미분 등 가공용 쌀’ 생산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잔작물의 선택은 지역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림 2 논 이용현황, 2007년

단위 : 만ha



주 : 품목별 식부면적은 농림수산성 추계치임.
 자료 : 농림수산성

(2) 추진방식

- 지역 농협의 자율적인 발상이나 전략에 의해 논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지역논농업비전’에 근거하여 수요에 따른 작물생산과 양호한 논농업 환경을 보전하면서 논농업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한 산지 형성을 도모한다.
- ‘지역논농업비전’은 지역별로 구성되는 ‘논농업추진협의회’(추진협)가 지역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지도·조언을 받아서 수립한다. 추진협은 생산자, 쌀 수요자, 소비자단체, 시정촌, 지역농협, 농업위원회, 공제조합, 토지개량구 등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농협단위로 설립되고, 농협 조합장이 회장, 농협이 사무국의 역할을 한다.

(3) 산지지원대책 교부금 가이드라인

- 산지지원대책 교부금의 총액은 종전의 생산조정 보조금이 한도액이 되며, 단지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교부금의 용도, 지원수준 등은 지역(추진협)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종전의 지원방식과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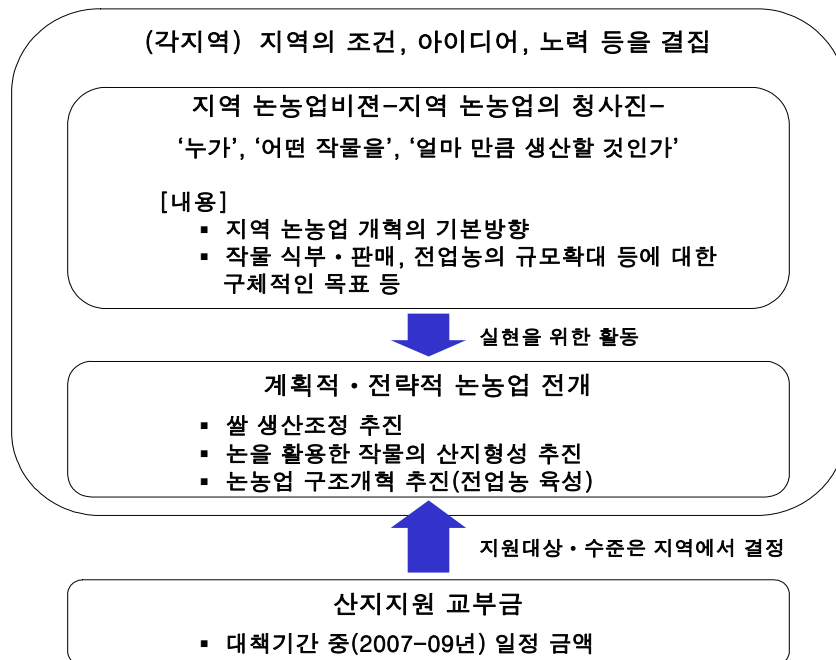
① 교부금의 용도

- 쌀 생산조정 추진
- 논을 활용한 작물의 산지형성 추진
- 논농업의 구조개혁 추진(전업농 육성)

② 고려사항

- 생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업농 육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진하도록 배려한다.
 - 전업농에 대한 지원단가 가산
 - 전업농의 규모확대·작업수위탁에 대한 지원
 - 생산의 조직화·법인화에 대한 지원
 - 전업농 중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블록로테이션)에 지원

그림 3 산지지원대책 개요



(3) 보조금 단가

- 산지지원대책의 교부금(전작장려금)은 지역 추진협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지불방식은 ‘기본지불’에 가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산지불’이 추가된다<그림 5>.
- 미야자키현(宮崎縣) 미야코노쥬(都城)의 경우는 10a당 기본지불 13,000엔, 가산지불① 27,000엔, 가산지불② 20,000엔 등 합계 최고 60,000엔이다. 이 금액은 2003년도 전국 평균 최고 73,000엔에 비하면 축소된 금액이다.

1.3. 산지지원대책의 농정상의 특징

- 산지지원대책은 2009년부터 명칭이 ‘산지확립대책’으로 변경되었다. 종전과 같이 지역(농협)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단지 자급력을 높이기 위하여 작물을 식부하지 않는 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 이 대책은 종래의 보조금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지원방식이다. 종래의 보조금은 전국 일률적인 요건과 단가로 지불되었다. 지역이 새로운 발상과 전략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정한 교부금을 일괄하여 지역에 지급한다. 이 자금을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역이 책임 하에 두어서 자주성과 내발성에 맡기고 있다.
- 예산제도 관점에서 보면, 지방분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종래의 전국 획일적인 방식의 보조금 농정과와의 차이점이다.
- 단지 지역의 자주성과 내발성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고령화되고 지역 인구가 과소화된 지역에서는 자주적인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마을단위 영농조합(마을영농)이나 농협의 농업경영(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 등의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2. 지역에서의 대응 사례

- 미야자키현(宮崎縣) 미야코노쥬(都城) 농협(JA 미야코노쥬)-

2.1. 지역 농농업개혁 기본방향

(1) 논 이용방향

① 작물진흥

-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에서 수요에 따른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철저히 하면서,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개편해 간다.
- 논 이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하고, 진흥작물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보조금이 없어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수량·품질 향상, 안정적인 생산·판매체제를 확립한다.

② 후계자 육성

- 지역내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상황에 비추어 농업구조개혁이 긴급한 과제이다. 인정농업자·농업생산법인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시도하고, 수개 마을을 단위로 하는 마을영농을 설립한다.
- 마을영농은 장기적으로 법인화를 염두에 둔 ‘경영의 일원화’, ‘1마을 1농장형’을 지향한다.
- 향후 이농이나 규모축소 등이 예상되는 고령농가·겸업농가의 논 임대차 설정을 촉진하고, 농작업 수탁 등에도 대응한다.

③ 토지이용 형태

- 조건이 좋은 평탄지역에서는 개별경영체나 마을영농을 중심으로 집단운작을 실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단지화가 어려운 중산간지역에서는 농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유지, 환경보전 등을 중시하여 경관작물 등의 식부를 확대한다.

④ 관계기관과의 연대

- 종전과 같은 시정촌 단위를 넘어서 농협을 단위로 하는 광역권에서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논농업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작물진흥 방향

① 쌀

- 다양화하는 소비·판매 니즈에 대응하여 ‘팔리는 쌀’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여 전략적인 판매체제를 확립한다.
- 경축연대, 친환경, 생산이력제, 현내 지산지소, 미분의 학교급식 확대 등

② 일반작물

○ 사료작물

- 전국적인 축산단지인 점을 반영하여 경축연대를 도모하면서 사료생산을 확대한다.
- 생산포장의 단지화, 축산농가로의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한다.
- 습답 등에는 사료용 벼 식부를 장려한다.

○ 대두

- 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식부 단지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 배수대책이나 병해충관리를 철저히 하여 등급비율을 향상한다.
- 풋콩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 납두용 소립종,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흑대두 등 특수 품종이나 계통은 지산지소와 연대하여 판로를 확대한다.

○ 메밀

- 타품종과 조합하여 논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식부를 확대한다.
- 단지화하여 식부하고, 지산지소로 생산·가공·판매 등 일관체제를 확립한다.

③ 지역진흥작물

- 토란(계약거래)
- 고구마(소주 원료용)

- 시설원예(품목 미지정)

④ 경관형성작물

- 유채, 해바라기, 자운영, 코스모스
- 조건불리지역에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나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

(3) 후계자 육성방향

- 이 지역에서는 마을 등을 단위로 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인정농업자와 같이 의욕적으로 농업경영을 행하는 자(개별경영체), 지역·마을의 토지이용조직·농작업 수탁 등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단위 영농조합(마을영농조직)을 논농업의 후계자로 설정한다.

- ‘개별경영체’는 ‘수도작+축산 또는 원예’를 조합한 복합경영이 대부분이며, 수도작에 특화하여 규모확대하는 개별경영체는 극히 드물다. 향후 육성대상 후계자 중에서 수도작 지향농가는 농지나 농작업 규모화를 지향한다.

- 고령화나 취농감소 속에서 농업생산력이나 마을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마을영농’은 논농업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영농은 수도작이나 전작으로 구성되는 토지이용형 농업부문에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유희농지 확대방지에도 기여한다. 상정하는 마을영농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이용 개인작업방식

- 기계를 공동 구입하여, 각 농가가 순번을 정하여 작업하는 방식
- 기계의 개인 소유보다는 기계투자비용이 적어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

② 공동이용 공동작업방식

- 기계를 공동 구입하여, 관계 농가가 전부 노력 제공하고 공동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
- 공동이용 개인작업방식보다는 마을영농조직이 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쉬워 기계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기계관리도 효율적이어서 마을의 결속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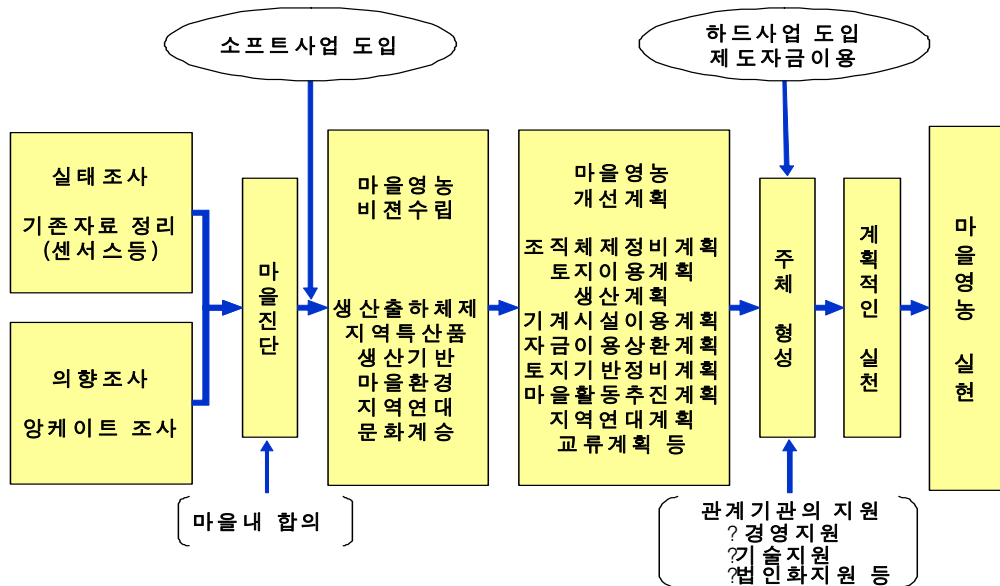
③ 공동이용 오퍼레이터방식

-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소수의 특정 오퍼레이터가 작업하는 기계작업 수탁방식
- 오퍼레이터의 기술습득이 가능하고 기계관리에도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④ 마을협업경영(마을 1농장)방식

- 마을영농조직이 그 구성원의 농지에 재배관리 등 작업을 일괄 실행하고 농산물 판매나 경비지출 업무를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마을영농조직이 토지이용, 재배품목, 재배방법 등에 대해 마을의 조건이나 효율성을 등을 고려한 농지의 규모화·단지화 등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다. 가장 발달한 마을영농조직이다.

그림 4 마을영농 실현과정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사례



자료 : 미야코노조 농농업추진협의회, 「미야코노조 농농업비전 : 농농업발전방향」, 2008. 4.

(4) 추진체제

- 관내(1 시 1정) ‘농농업추진협의회’를 설치, ‘농농업비전’을 수립하고, 이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방법을 기획·실천한다. 정기적으로 평가·검토를 실시하고 시정단계에서의 활동을 지도·지원한다.
- 시정단계에서는 JA 지소단위로 설치된 추진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농농업비전’에서 제시된 추진방식에 따라 농농업 개혁을 실행한다.

2.2. 산지확립교부금의 활용방법 단가 및 지불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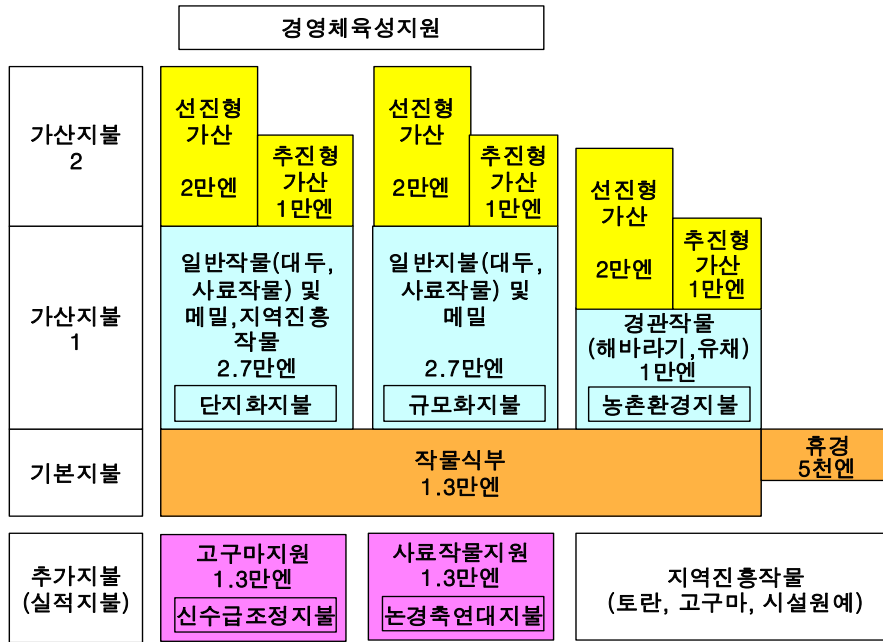
(1) 기본원칙

- 이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농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① 쌀 생산조정
의 추진, ② 논을 활용한 작물의 산지형성 추진, ③ 농농업 구조개혁 실천 등
을 위하여 ‘산지확립교부금’을 교부한다.
- 지원체계는 전작과 수도작 양면으로 구성되며, 전작의 적극적인 육성을 강화
한다.

(2) 산지확립교부금의 단가 및 지불요건<그림 5>

- 기본지불은 쌀 생산조정 실시를 요건으로 한다.
- <가산지불 1>의 ‘단지화지불’은 연접면적 4ha 이상, 또는 1ha 이상 단지의 합
계가 지구 전작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ha 이상 단지의 합계가 지구 전작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가산지불 1>의 ‘규모화지불’은 ①농가의 경우 2개 이상의 주요작물 3ha 이상,
또는 전체 주요작업 2ha 이상, ②생산집단의 경우 2개 이상의 주요작업 5ha 이
상, 또는 주요작업 3ha 이상이어야 한다.
- <가산지불 1>의 ‘농촌환경지불’은 농촌경관형성 및 환경순환형 농업에 지원하
는 것이며, 1ha 이상의 경관작물(유채, 해바라기 등) 단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 <가산지불 2>의 ‘선진형’은 마을영농 등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며, 논
농업경영안정대책 가입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갖춘 자, ‘추진형’은 개별경영체
및 마을영농형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논농업경영안정대책
의 가입자이어야 한다.
- ‘추가지불(실적지불)’은 논농업에서 새로운 수급조정시스템, 경축연대논활용대
책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5 산지확립대책 지불체계, 미야코노조, 2008년



주 : (1) 지불단가는 상한이며, 지불총액이 예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가는 감소할 수 있다.

(2) 사료용 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요건으로 지불한다.

자료 : 미야코노조 논농업추진협의회, 「미야코노조 논농업비전 : 논농업발전방향」, 2008. 4.

3. 산지에서의 주요 경영사례

3.1. 농사조합법인 돈돈팜후루도노 : 마을영농 사례

(1) 지역 개황

- 후루도노(古殿) 지역은 가구수 149호, 농가호수 30호(자급적 농가 제외), 인구 377명이다.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율도 20.1%로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지면적은 논 31.2ha, 밭 4.1ha, 과수원 0.4ha 계 35.7ha이며, 경지정리율은 논 96.2%, 밭 19.5%로서 논은 거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있다.(2005년 농업센서스)
-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수확축제 개최, 농악놀이 계승을 비롯하여 마을 내 도로와 용배수로 제초와 청소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마을 앞쪽 습지논의 경지정리를 계기로 마을배수사업과 쌀 생산조정 논외 단지화를 실시하는 등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공동활동으로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 '마을영농'의 조직화 진화

- 후계자 부족과 농업기계 과잉투자로 논 농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에 대응하여 “마을의 농지와 농업은 스스로 지키자”라는 취지로 후루도노 지역은 1994년 기계이용조합을 설립, 기계 공동이용, 농작업 수탁, 농산물 생산·직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영농의욕이 높은 농가에게는 기계 공동이용을 실시하고, 전작 논이나 후계자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수탁작업이나 농지임차를 실시하는 등 마을단위로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을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가 54호와 남사츠마농협(JA南薩摩)의 출자에 의해 2005년 4월, 가고시마현 최초로 마을단위의 농업생산법인 ‘농사조합법인 돈돈팜 후루도노’를 설립, 같은 해 5월 ‘특정농업법인’으로 인정받았다.
- 조직 개요
 - 창립일 : 2005년 4월 1일
 - 조합원 : 59명 및 남사츠마농협
 - 임 원 : 이사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 출자금 : 1구좌 1만엔, 총액 412만엔

(3) 사업 특징

- ① 농지 규모화와 경작포기 방지
 - 이 지역에서는 이농자가 예상을 넘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요인은 법인이 농지임대차·작업수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중한 농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전되고 있다.
- ② 기계·시설의 공동이용에 의한 과잉투자 회피
 - 법인이 고성능 기계 정비나 공동이용을 추진하여 농경영의 부담이 큰 기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농작업 수탁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가별로 기계소유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역할분담에 의한 다양한 농업노동력 제공과 지역 환원
 - 기계작업, 경작업, 농지·용수 유지 등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가만이 아니라 비농가, 고령자, 여성 등 마을 주민이 분담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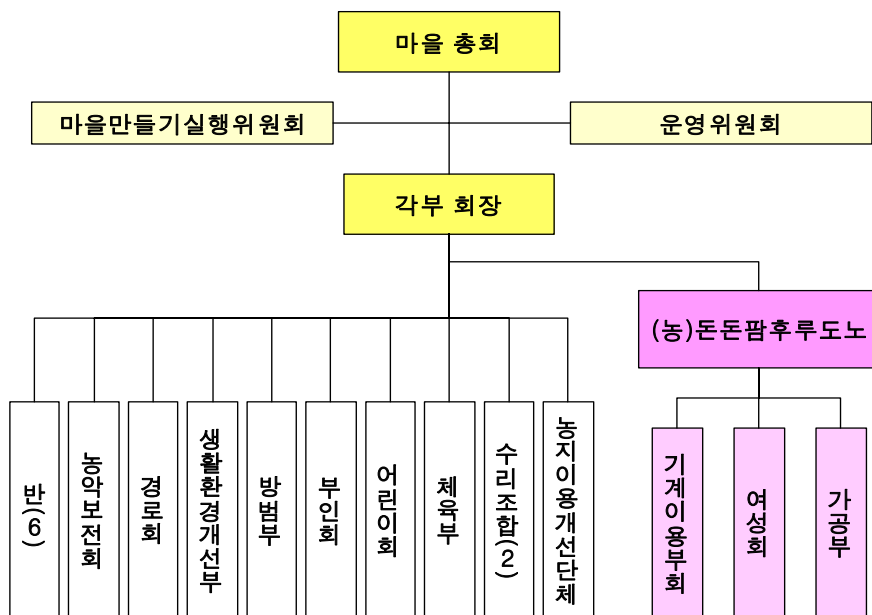
오퍼레이터는 전업농에 한정하지 않고 직장인도 주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여성그룹인 ‘여성회’ 회원들은 제초, 물관리 등 보완적인 경작업을 담당한다.

(4) 경영 개황

- 수도(임차경영 5ha, 작업수탁(수확 12ha, 건조 15ha)), 대두(2ha(수확작업은 농업공사에 위탁)), 가공용 고구마(11ha), 양파(1ha), 메밀(0.5ha)
- 가공 : 식혜 : 6,000 병/년, 양파드레싱 800 개/년(인근 ‘가와베 미치노에키’에서 판매)
- 농기계 보유현황
 - 콤바인(4조 2대), 트랙터(50마력, 30마력, 20마력 각 1대),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6조 1대, 4조 2대), 양파이식기, 색채선별기,
 - 저온저장고, 식혜가공 기계(1벌), 곡물 건조기(3,500kg 3대, 1,800kg 1대), 무세미 기계, 농기계 창고 등
- 기타
 - 지역의 논 임차료는 10,000엔/10a
 - 산지형성보조금은 23,000엔/10a(법인 20,000엔/10a, 지주 12,000엔/10a 분배)
 - 지주 분배분은 임차료, 보조금 계 22,000엔/10a

(5) 조직

그림 6 농사조합법인 돈돈팜후루도노 조직도



3.2. 코지카농업생산조합 : 양조 기업의 농업진입 사례

(1) 지역 개황

- 돌풍이나 냉해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며,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이 가세하여 유희농지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주업체가 많이 있어 소주원료용 고구마 생산이 발달한 지역이다.
- 개별경영으로 최대 10ha의 경작이 가능하다. 경지분산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경영은 한계가 있다. 임차료는 10a 당 4,000~8,000엔 정도이다.

(2) 법인설립 경과

- 1971년 양조업체의 협업화, 공동화의 일환으로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카야시(鹿屋市) 인근의 소주 제조업체 4개 회사(현재는 6개 회사)가 ‘코지카주조협업조합’을 설립하였다.
- 1994년 농업생산자의 고령화, 전분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소주원료 부족이나 기존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소주업체와 농가의 공존공영’을 지향, ‘코지카주조협업조합’이 농사조합법인 ‘코지카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였다.
 - 1994. 12 설립, 출자자 7명, 출자금 320만엔

(3) 사업 개요

- ① 농산물 생산 및 판매사업, ② 비료, 농약, 자재, 종자 등 판매, ③ 농작업 수탁, ④ 이상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 업무를 하고 있다.
 - 직영농장 29ha, 계약농가 76호(2008년)
- 직영농장은 임원종사자 2명, 사원 7명으로 구성, 지역의 유희지 등을 임차하여 작물재배를 하고 있다.
 - 2005년 고구마 생산량은 709톤, 중 코지카주조에 366톤(52%) 공급하고, 외부 판매로 가공용 129톤, 다른 주조업체 각각 109톤, 104톤 제공하고 있다.
-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필요자재를 공급하고, 원료농산물을 구입한다.
 - 계약농가와 관계는 이 지역에 있는 고구마작목반과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원료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그림 7 참조>.
 - 2005년(계약농가 56호) 고구마 생산량은 2,650톤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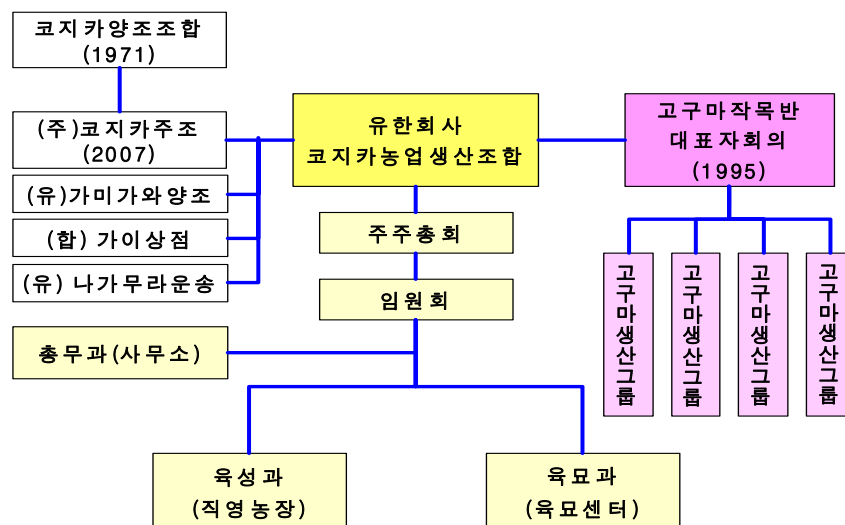
-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지도, 공동구입, 공동출하,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무담보 무이자, 5년 분할상환, 2006년 융자총액 260만엔) 등을 실시한다.
 - 농가에게 ‘매입보증’과 태풍·냉해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계약농가에게 매입을 보증하고, 흉작의 경우 소득보상, 가격이 상승한 경우 시장가격과의 차액보전을 실시한다.
 - 자재도 농협가격의 2분의 1 이하로 공급하는 등 계약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2005년 현재, 원료고구마는 직영농장 366톤(전체의 9%), 계약농가 2,650톤(69%), 업자 865톤(22%), 합계 3881톤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의 78%를 조합내부에서 확보하는 셈이다.

(4) 성과 및 과제

- 소주원료용 고구마의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의 압박에서 유희농지를 활용한 직영농장 경영, 인근 고구마작목반과의 계약 재배 등으로 안정적인 원료확보와 농지유희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농지 기반정비가 필요하고,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속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과제이다.

(5) 조직

그림 7 유한회사 코지카농업생산조합 조직도



3.3. 농사조합법인 유메팜타로보우 : 지역농협 주도의 마을영농 사례

(1) 지역 개황

- 미야자키현 남서부에 위치, 미야코노쥬 분지의 중앙부, 표고 130m 정도의 논 농업지대이다.
- 논은 1935년경 경지정리가 실시되었으나 구획이 10a 정도의 소구획, 누수가 심하였으나, 1992~00년간 20ha, 2003~08년간 47ha를 30a 구획으로 각각 재경지 정리 실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단위는 2ha로 정비하였다.
- 이러한 기반정비로 농작업 효율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 농지고도 이용, 유동화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2) 법인 설립경과

- 1968년 ‘미야코노쥬시(都城市)지역농사진흥회’ 설립, 공동방제, 조직적인 지역 농업 발전을 시도하였다.
- 1970년부터 생산조정 시작, 농가별로 희망에 따라 전작을 실시하였다. 1980년부터 단지별 전작을 실시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후, 1983년 집단전작을 실현하였다.
- 1990년 농작업수탁작업을 실시하는 ‘타로보우영농개선조합’(임의조합)을 조직, 개별농가의 기계투자를 억제, 고령화에 따른 작업위탁 증가에 대응하였다.
-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에 의해 작업위탁에서 농지임대가 증가하였다. 임의조합은 농지매입이나 임대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로보우영농개선조합’(임의조합)을 대신하는 ‘농사조합법인 유메팜타로보우’를 2004년 4월 설립하였다. 동년 10월 현재 최초로 ‘특정농업법인’으로 인정되었다.
- 법인 개요
 - 설립일자 : 2004년 4월 11일
 - 구성원수 : 224명(3마을의 224호 전부 참가)
 - 출자금액 : 23,139,600엔(1구좌 600엔, 총계 38,566구좌, 중 2,500구좌(1,500,000원)는 JA미야코노쥬가 출자)
 - 구성원 농지면적 : 150ha

(3)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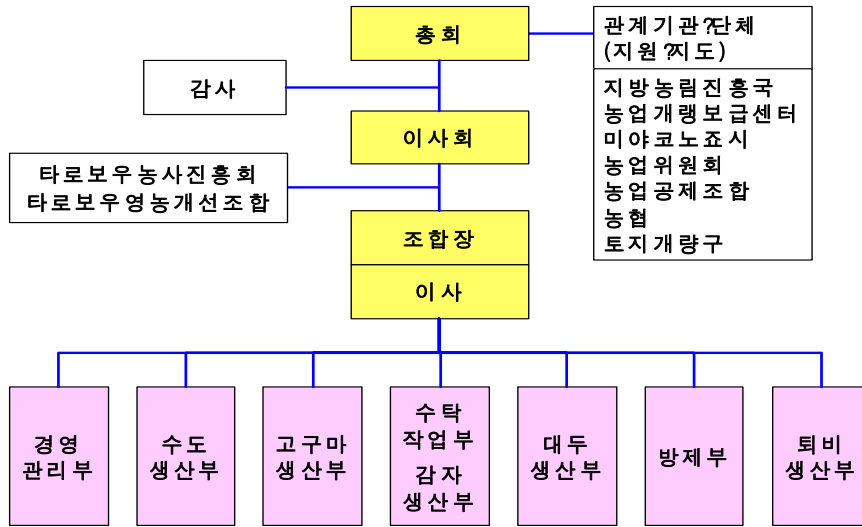
- 이 법인은 구성원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농작업 수탁을 받아서 농지의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담당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2008년도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경영 : 대두 30ha, 감자 20ha, 고구마 10ha, 사료용옥수수 25ha, 수도 6ha
 - 작업수탁 : 수도(경운 5ha, 이앙 10ha, 수확 20ha), 방제(200ha)
 - 퇴비생산 : 500톤
- 상기 농업경영, 수탁사업 외에도 150ha의 논은 수도와 다른 작물간의 집단 운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4) 성과 및 과제

- 고령화한 농가의 농작업 수탁이나 농지임차 등을 통하여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고 지역농업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내 집단운작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작 작물을 집단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 수요자에 니즈에 대응하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다.
- 현재의 단기 임차에 의한 전작물 생산의 농업경영과 농작업 수탁에 의한 수입 구조를 장기임차권 설정에 의한 규모화와 수입성이 높은 전작물 도입,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체험농원 등 다각경영의 실현, 마을협업경영(1마을 1농장형) 방식의 도입 등이 과제이다.

(5) 조직

그림 8 농사조합법인 유메팜타로보우 조직도



3.4. 유한회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쥬(ACM) : 지역농협 자회사

(1) 지역 개황

- 이 지역은 밭농업지역이며, 1975년 9개 농협이 ‘미야코노쥬 농협(JA 미야코노쥬)’로 합병되었다. 현재 1시 5정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60세 이상이 69%에 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해 영농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협이 이를 보완하는 의미의 농업경영과 작업수탁을 확대하고 있다.
- 지역의 임차료는 일반작물 8,000~10,000엔/10a, 차 15,000엔/10a이며, 계약기간은 4~15년으로 하고 있다.

(2) 법인설립 경과

- 1995년 미야코노농협(JA 미야코노쥬) 농산부에 ‘영농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 2000년 JA 미야코노쥬 농산과 소관의 농업기계은행과 JA 미야코노쥬 판매과 소관의 영농지원센터를 통합한 ‘농산사업센터’를 설립하고, 분사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2001년 ‘농산사업센터’를 JA 미야코노쥬에서 분리하여 자회사로 전환, ‘유한회

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쥬(ACM)'을 설립하여,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지역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농작업수탁을 계속한다.
- 출자구성 : 출자금액 1,000만엔(JA 미야코노쥬 95%, 전무 3%, 상무 2%)

(3) 사업 개요

① 농업경영

○ 녹차부문

- 녹차산지 육성을 위해 2001년 (주) 이또엔(伊藤園)과 계약거래를 하고 있다. 면적은 2001년 2.7ha를 시작으로 2008년 150ha로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략품목으로 설정하여 향후 3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수도·전작부문

- 유희농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여 ACM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현재는 소주원료용 고구마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 중심의 경영이지만 향후 논의 규모확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경영규모(2007) : 원료용 고구마 23ha, 감자 2ha, 토란 2ha, 당근 1ha, 수도 10ha

② 농기계 수탁작업

- 농협의 농작업수탁사업의 일환으로 ACM 설립이전부터 실시하던 작업수탁사업은 계속 실시하며, 조합원에게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관내 8개 지역으로 구분, 작업수탁을 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회가와와의 조정을 도모하여 분쟁을 피하고 있다<그림 9>.
- 2007년 대형기계사업 2,865ha, 벼 건조조제 81,787가마(60kg/가마), 수도육묘 381,108상자, 종자건조 16,910가마, 백미공급 119톤, 수탁작업 77ha

- ③ 종업원은 3가지 형태로 고용하여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농협에서 채용한 60명의 정규직이 중심이 되어있고, 사회보장이 포함된 일당제의 임시직(70세 정년) 31명, 노동피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이 없는 시급제의 등록종업원 115명 등이다.

(4) 성과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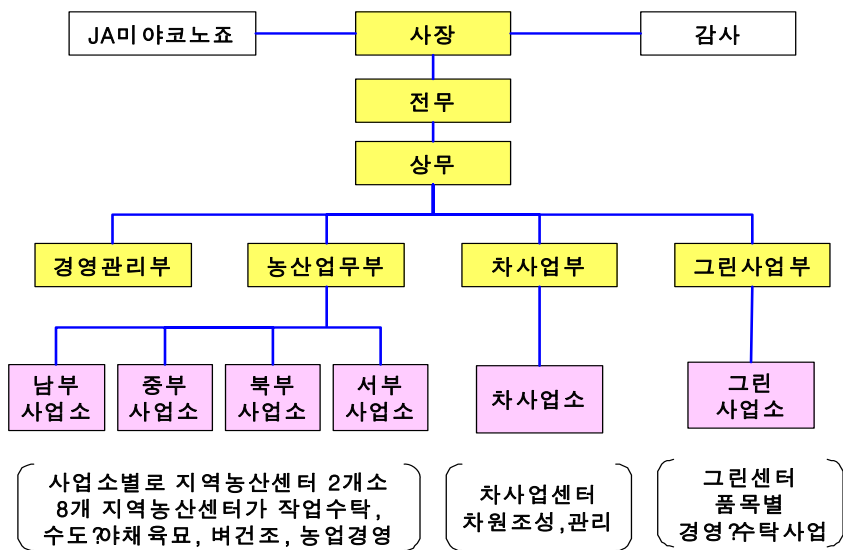
- 농협이 고령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보완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지 경영불안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차는 전망이 좋은 편이나 소주원료용 고구

마와 감자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가격하락으로 불안한 편이다.

- 향후 경영수탁과 작업수탁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경지의 분산이 문제이다. 교환분합 등에 의한 단지화가 과제이다.
- 인건비가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과 원예의 복합경영이나 육모사업 등과 같이 시설의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다각경영으로 인건비 비중을 절감해야 한다.
- 농협법에 의하면 조합원과 경합하는 농협의 직접적인 농업경영은 불가능하며, 또 거래 물량이 감소하는 것 등을 배경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향후 농지유휴화 방지와 농업자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지역농업 유지가 과제이다.

(5) 조직

그림 9 유한회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조(ACM) 조직도



3.5. 농업기계은행사업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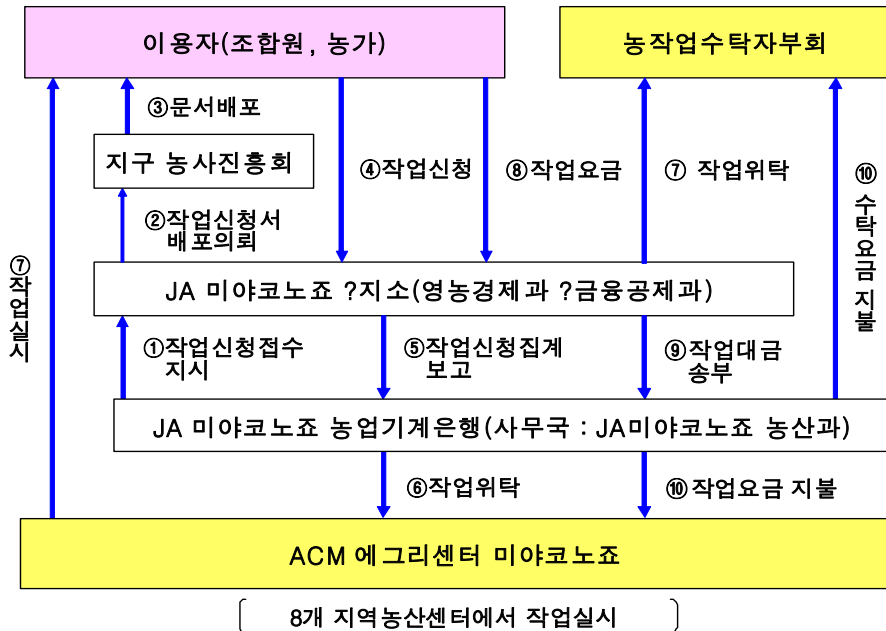
- ‘농업기계은행사업’은 1970년대 초반 농기계보유 농가와 농작업수탁 희망농가간에 농협이 조직적으로 중개·알선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과 농작업 효

유효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1980년대에 영농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이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작업 수탁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수탁작업 알선, 농기계 이용조정, 신규 수탁조직 육성·연수 등에 의해 후계자를 확보하고 지역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농협이 운영주체인 것이 대부분이며, 영농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협 내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의 수당이나 운영비는 농협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독립된 조직은 아니다. 지역농협을 단위로 하여 평균 참가호수 400호, 수탁면적 500ha 정도이다.
- 작업 수탁자의 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은행의 하부조직으로 수탁부회 등을 설치하여 작업의 규모화·단지화 등과 같은 계획적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JA 미야코노쥬의 농업기계은행사업<그림 10>

그림 10 JA 미야코노쥬의 농업기계은행사업 개념도



(이상)